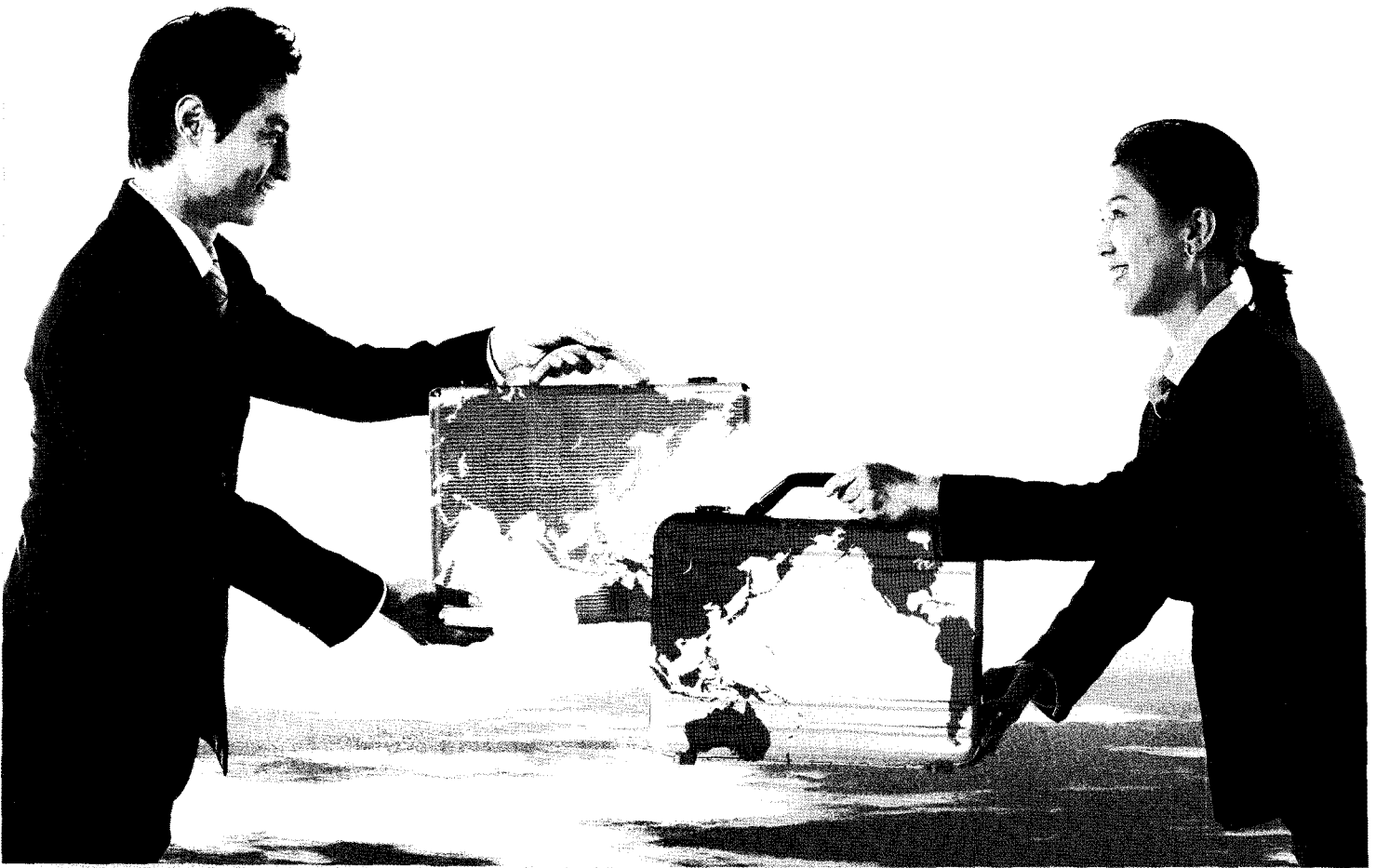


# 한-EU FTA

## 한-EU FTA의 시너지 효과

한-EU FTA의 효과는 양국간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양국간 무역의 증가와 투자 유치의 증가를 통해  
양국간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한-EU FTA



## — 한-EU FTA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과의 협상

우리나라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체결한데 이어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시작했다. EU가 비록 미국에 비해 전략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란 점에서 EU와의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국내 시장이나 교역 구조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EU는 인구 4억 8천 700만 명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08년 기준 16조 6천억 달러로 미국(12조 9천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다.

EU 27개 회원국 간 역내 거래를 제외한 역외 수출·입 시장규모도 지난해 3조 2천억 달러로 미국 2조 9천억 달러, 중국 1조 8천억 달러, 일본 1조 2천억 달러를 넘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 시장이다.

이런 EU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와 EU 27개 회원국이 협정의 발효와 함께 '단일시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이어 유럽이란 거대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실제로 세계 최대 단일시장과 하나의 시장이 되면 EU 시장에서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대 효과가 한-미 FTA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통상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EU FTA는 한-미 FTA로 미국기업에 우리 시장이 개방된 수준에서 EU 기업에 개방하는 것으로 추가적 시장 개발 없이 세계 최대 시장에 유리한 접근이 가능케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한국과 EU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수출 584억 달러, 수입 400억 달러 등 총 984억 달러에 달해 미국을 제쳤다. EU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로 떠올랐다는 얘기가. 무역흑자 규모도 지난해 194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투자규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EU는 지난해 말까지 40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의 366억 달러와 일본의 195억 달러를 넘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EU에 우리는 유럽지역을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번째 교역 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그 대가로 우리 시장 역시 EU에 개방하게 되고 이에 따른 관련 국내 산업 및 종사자 피해도 예상된다.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덕에 누릴 혜택과 입을 손실을 면밀히 계산하지 않은 채 대책 없이 협상 성과에만 매달릴 경우 의도와 달리 문제점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 한-EU FTA와 한-미 FTA, 어떻게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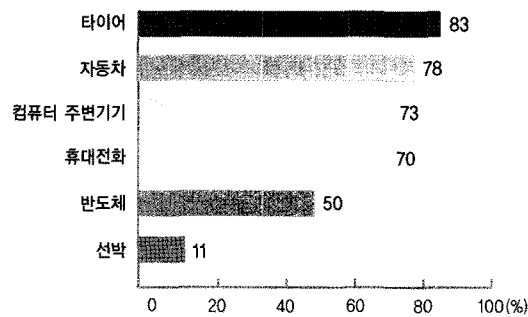
2007년 한국과 미국의 FTA 추진이 격렬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된 데 비하면 한-EU FTA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타결을 앞두고 있다. 한-EU FTA와 한-미 FTA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미 FTA의 본질은 상품 교역의 확대에 한정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공적 영역의 축소, 높은 수준의 서비스업 개방 등을 통한 한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굳이 도식화시키자면 한-미 FTA는 T(Trade)가 아닌 F(Free)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한-EU FTA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서비스업 개방은 네거티브 방식(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개방을 원칙이었던 데 비해, 한-EU FTA에서는 포지티브 방식(개방 항목을 명기)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비해 EU는 서비스업 보다는 제조업에 비교 우위가 있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한-EU FTA는 상품 교역과 관련된 관세를 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FTA가 아니더라도 이미 GATT체제하에서 많이 낮춰져 있다. 한-EU FTA는 한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시각보다는, 개별 업종 차원에서의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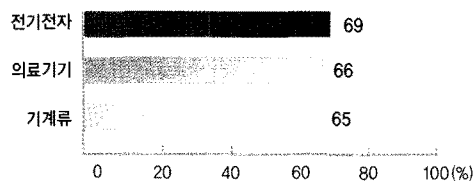
### 한-EU FTA는 한-미 FTA 이상의 교역 증대 효과 기대

주력 수출 품목 중 한-EU FTA 체결시  
수출 증대 가능성



(출처 : KOTRA)

수입확대나 거래선 검토 중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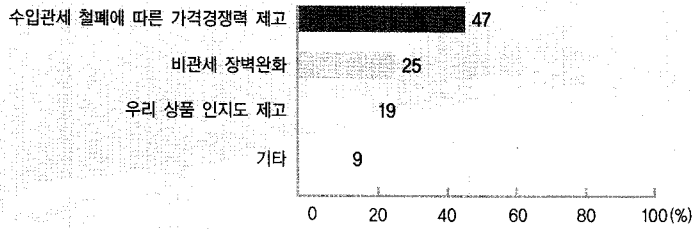
(출처 : KOTRA)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최대 단일시장인 EU 시장에서 자동차, TV부품, 타이어, 컴퓨터주변기기 등 한국 주력 품목의 수출이 탄력을 받으면서 한-미 FTA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3%대인 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철폐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양측이 비즈니스, 서비스와 같은 분야는 물론 핵심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진전된 여건으로 인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트라(KOTRA)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지 바이어의 64%가 한-EU FTA 체결 시 한국산으로 수입선을 변경할 의사를 표명했고, EU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63%도 FTA가 EU지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한국은 EU와의 FTA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에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타이어, 컴퓨터 등 주종 수출 품목의 판매가 증가하고, 휴대전화 반도체 등 관세율 0%인 제품도 인지도 제고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늘 것으로 보인다.

### 수입확대나 거래선 전환 검토의 주된 이유



〈출처 : KOTRA〉

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수출은 장기적으로 110억 4천만 달러, 수입은 81억 9천만 달러가 늘고 무역흑자도 28억 5천만 달러 늘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말 코엑스에서 열린 한-EU FTA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양측 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고용은 30만~60만 명 늘어나고 1인당 소득은 48만 원 증가

### FTA란 무엇인가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 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07년 6월 발효된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상품무역협정은 2008년 11월 캄보디아 등 9개국에 대한 발효가 완료되었다.